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박서연^{1*}, 이동진²

¹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진해장애인복지관 선임대리

Relationships among Fatigue, Musculoskeletal Pain and Job Satisfaction in Rehabilitation Center Employees

Seoyoun Park^{1*}, Dongjin Yi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²Senior assistant manager, Jinhae Community Center for the Differently Abled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199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연수($\beta=-.033$, $p=.010$), 피로($\beta=-.051$, $p=.015$), 근골격계 통증($\beta=-.020$, $p=.047$)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직무만족도 수준을 8.4%로 설명하였다($F=5.549$, $p<.001$).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주제어 :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 근무연수

Abstracts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was to find out fatigue, musculoskeletal pain and job satisfaction in rehabilitation centers employees. The research subject was 199 rehabilitation center employe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job satisfaction for rehabilitation center employees were working duration($\beta=-.033$, $p=.010$), fatigue($\beta=-.051$, $p=.015$), and musculoskeletal pain($\beta=-.020$, $p=.047$), explaining 8.4% of the variation in job satisfaction($F=5.549$, $p<.001$). These results can be recommended as preliminary data for preventing and managing fatigue and musculoskeletal pain of rehabilitation centers employee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mmunity.

Key Words : Rehabilitation Center Employees, Fatigue, Musculoskeletal Pain, Job Satisfaction, Working Duration

*This article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ing from Jinju Health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 Seoyoun Park(mrsy80@naver.com)

Received March 23,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April 8, 2021

Published June 28, 2021

1. 서론

1.1 서론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수는 2001년 총인구 중 약 2.4%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체 약 4.9%로 약 2.5%로 증가하였다[1]. 이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확대를 위하여 2000년 5월 전국 장애인 복지관을 처음 개소하여 2007년 146개소에서 2019년에는 234개소로 1.6배로 점차 증가하였으나[2], 늘어난 장애 인구수에 비해 장애인 복지관의 수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재활, 교육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타 직종의 직장인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환경으로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낮은 직무만족도는 낮은 수준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4],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낮은 직무만족도가 삶의 질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직무 상황에 대해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말하며 이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으로 구분한다. 내재적 만족은 직무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며 외재적 만족은 보상, 작업환경, 승진으로 외재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5].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결혼 여부, 근무연수, 성별, 승진, 업무량, 심리적 변인[6-8],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9]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는 직무스트레스와 역상관 관계가 있으며[10], 장기간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혈청 코티솔을 감소시켜 신체 및 정신적 피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신의 통증과 수면장애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전신의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육 부위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11], 지속적인 근골격계 통증과 피로는 업무의 불편감을 주게 되어 다시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반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도와 피로 및 근골격계 통증을 보는 연구는 거의 없으나,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

골격계 통증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12],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로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3]이라 보고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는 아니나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보면,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 수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도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가 대부분이었다[5-9].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낮은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을 변인으로 하여 측정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과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관계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근골격계 통증, 피로, 직무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하여 *도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6개 장애인 복지관(N군, C시 3개, T시, C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료 동의서에 서명한 자를 본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산출의 크기는 184명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탈락률(20%)을 고려한 220명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199명(90.4%)의 설문지를 수거하여(회수율:90.4%), 회수된 199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장애인 복지관의 모든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9일~2020년 3월 22일까지 2주일간 수행하였다. 6개의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고, 연구대상자에게 설명 및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이며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중단 및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료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서와 설문지를 각각 구분하여 회수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으로 핸드크림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9문항, 피로 19문항, 근골격계 통증 1문항, 직무만족도 32문항 총 61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들은 원 도구 개발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도구 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교육에 관련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직업과 관련한 특성은 근무연수, 월보수, 근무형태, 근무시간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4.1 피로

피로는 1970년 Schwartz, Jandorf와 Krupp[14]의 Fatigue Assessment Inventory(FAI)를 바탕으로 하여 Jang[15]이 개발한 19문항의 다차원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피로수준을 평가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개발 당시 .88이었고, 본 연구는 .87이었다.

2.4.2 근골격계 통증

Lee와 Kim[16]이 제시한 Numeric Pain Intensity Scale로 측정하였으며 0점인 '전혀없다'에서 10점인 '매우 심하다'까지 본인이 자각하는 평균적인 통증 수준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2.4.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Patrica, Smith, Kedall와 Hulin[17]에 의해 개발된 JDI(Job Descriptive Index) 척도를 Lee[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직무, 보수, 승진, 동료, 시설, 전·이직의 총 32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18]의 연구 Cronbach's α 값이 .79이었고, 본 연구는 .88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s test로 하였다.
- 3)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 4)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와 같이 여성이 71.9%(143명)이었고, 연령은 30-39세가 43.2%(86명)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25.6%(51명), 20-29세가 18.1%(36명), 50-59세가 11.1%(22명), 60세 이상이 2%(4명) 순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7.62세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의 경우가 64.3%(128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천주교가 24.1%(48명)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61.3%(122명), 근무연수는 3년 미만이 33.2%(66명), 월보수는 200-250만원이 33.7%(6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거의 앉아서 근무한다'가 77.9%(155명),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이 59.8%(119명)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6.18시간이었다.

3.2 대상자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의 수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는 Table 2에서와 같이 평균 4.64 ± 0.99 점(1.79-7.00점)이었고, 근골격계 통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9)

Characteristics/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56(28.1)	
	Female	143(71.9)	
Ages	20-29	36(18.1)	37.62±9.04
	30-39	86(43.2)	
	40-49	51(25.6)	
	50-59	22(11.1)	
	≥60	4(2)	
Marital status	Married	128(64.3)	
	Unmarried	67(33.7)	
	Etc	4(2.0)	
Religion	Christianity	26(13.1)	
	Buddhism	38(19.1)	
	Catholicism	48(24.1)	
	Etc	3(1.5)	
	Non religion	84(42.2)	
Education	High school	5(2.5)	
	College	28(14.1)	
	University	122(61.3)	
	Graduate school	44(22.1)	
Working duration	≤3 years	66(33.2)	
	3-4 years	28(14.1)	
	5-7 years	18(9.0)	
	8-10 years	25(12.6)	
	≥10 years	62(31.1)	
Monthly pay	≤1.5 million won	2(1.0)	
	150-200 million won	53(26.6)	
	200-250 million won	67(33.7)	
	250-300 million won	39(19.6)	
	≥300 million won	38(19.1)	
Working type	Almost sedentary	155(77.9)	
	Almost standing	44(22.1)	
Working hours (a day)	≤6 hours	80(40.2)	6.18±1.22
	≥6 hours	119(59.8)	

Table 2. Level of Fatigue, Musculoskeletal Pain, Job Satisfaction

(N=199)

Characteristics	Mean±SD	Range (Min. ~Max.)
Fatigue	4.64±0.99	1.79~7.00
Musculoskeletal pain	4.55±2.06	1~7
Job satisfaction	2.71±0.30	1.82~4.00

Table 3. Differences in Fatigue, Musculoskeletal Pa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9)

Characteristics		Fatigue		Musculoskeletal pain		Job satisfac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4.56±1.09	-1.223 (.223)	1.46±0.53	-1.600 (.111)	2.71±0.34	.114 (.909)
	Female	4.69±0.95		1.59±0.50		2.71±0.28	
Ages	20-29	4.57±0.88	4.222 (.003) (b)d) ¹⁾	1.36±0.48	3.683 (.006)	2.85±0.26	2.621 (.003) (a)b) ¹⁾
	30-39	4.90±0.89		1.65±0.47		2.69±0.31	
	40-49	4.56±1.11		1.65±0.48		2.62±0.30	
	50-59	4.02±1.04		1.41±0.50		2.76±0.24	
	≥60	4.10±0.61		1.50±0.57		2.63±0.27	
Marital status	Married	4.63±1.07	.146 (.864)	1.60±0.49	.600 (.550)	2.70±0.30	.528 (.591)
	Unmarried	4.67±0.86		1.52±0.50		2.72±0.31	
	Etc	4.41±0.08		1.50±0.01		2.86±0.03	
Religion	Christianity	4.42±0.80	2.695 (.032) (c)e) ¹⁾	1.38±0.49	1.060 (.378)	2.73±0.29	.812 (.519)
	Buddhism	4.63±0.91		2.76±0.22		2.76±0.22	
	Catholicism	4.63±1.02		1.60±0.49		2.73±0.35	
	Etc	3.07±1.14		1.33±0.57		2.76±0.20	
	Non religion	4.78±1.06		1.60±0.49		2.67±0.29	
Education	High school	3.53±0.52	5.268 (.002) (a)c) ¹⁾	1.60±0.54	.781 (.506)	2.95±0.23	1.605 (.189)
	College	4.40±1.10		1.50±0.50		2.75±0.30	
	University	4.83±0.95		1.53±0.47		2.71±0.31	
	Graduate school	4.40±0.99		1.66±0.47		2.66±0.25	
Working duration	≤3years	4.63±0.96	.440 (.780)	1.52±0.50	2.026 (.092)	2.80±0.26	3.276 (.013) (a)e) ¹⁾
	3-4years	4.69±1.01		1.43±0.28		2.73±0.30	
	5-7years	4.84±0.89		1.61±0.50		2.59±0.34	
	8-10years	4.74±1.20		1.44±0.58		2.68±0.39	
	≥10years	4.53±0.98		1.69±0.46		2.64±0.26	
Monthly pay (won)	≤1.5million	5.26±2.38	.550 (.699)	2.68±0.19	2.313 (.059)	2.00±0.00	1.688 (.154)
	150-200million	4.67±0.87		2.75±0.28		1.45±0.50	
	200-250million	4.67±1.11		2.75±0.34		1.64±0.53	
	250-300million	4.69±0.83		2.61±0.29		1.71±0.53	
	≥300million	44.46±1.04		2.68±0.22		1.71±0.46	
Working type	Almost sedentary	4.66±1.00	.499 (.618)	1.54±0.51	-.810 (.419)	2.72±0.30	.850 (.397)
	Almost standing	4.57±0.97		1.61±0.53		2.67±0.28	
Working hours (a day)	≤6 hours	4.68±0.92	.417 (.677)	1.54±0.52	-.452 (.652)	2.68±0.32	-1.100 (.272)
	≥6 hours	4.62±0.09		1.57±0.51		2.73±0.28	

1) Sheffé's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Fatigue, Job Satisfaction, Musculoskeletal Pain

(N=199)

Characteristics	Fatigue	Musculoskeletal pain	Job satisfaction
	r(p)	r(p)	r(p)
Fatigue	1		
Musculoskeletal pain	.110(.121)	1	
Job satisfaction	-.142(.046)	-.112(.002)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Fatigue in Nursing Students

(N=197)

Variables	B	S.E.	β	t(p)	R ²	F(p)
Working Duration	-0.33	.013	-.184	-2.586 (=.010)	.084	5.549 (.001)
Fatigue	-.051	.021	-.170	-2.456 (=.015)		
Musculoskeletal pain	-.020	.010	-.137	-2.003 (=.047)		

수준은 평균 4.55 ± 2.06 점(0-7점)이었다. 직무만족도는 평균 2.71 ± 0.30 점(1.82-4.0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 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는 Table 3에서와 같이 연령($F=4.222, p=.003$), 종교($F=2.695, p=.032$), 학력($F=5.268,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은 50-59세보다 30-39세에 피로가 유의하게 높았고, 종교는 천주교보다 없음에서 피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최종학력은 대졸이 고졸보다 피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는 연령($F=2.621, p=.003$), 근무연수($F=3.276,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은 20-29세보다 30-39세에서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연수는 3년 미만보다 10년 이상에서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 수준의 상관관계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직무만족도와 피로는 음의 상관관계($r=-.142, p<.046$)로 나타났으며, 근골격계 통증 역시 음의 상관관계($r=-.112, p<.002$)로 나타났다.

3.5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무만족도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일반적 특성인 연령, 근무연수, 피로 및 근골격계 통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Table 5에서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통계량은 1.929로 독립적이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였으며, 분산팽창인자도 모두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분석에서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고 회귀식의 모든 가정이 충족되어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무연수($\beta=-.033, p=.010$), 피로($\beta=-.051, p=.015$)와 근골격계 통증($\beta=-.020, p=.047$)이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

와 근골격계 통증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되며, 이들 변인은 직무만족도 수준의 8.4%를 설명하였다($F=5.549,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의 수준은 4.64점(7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사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활용한 연구에서 4.3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낮은 피로 수준을 보였다[19]. 이는 Cho, Yang, Kim과 Cho[19]의 연구에서 사무직 공무원은 거의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는 반면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은 스포츠 및 여가활동 사업, 직업재활 사업과 같은 단순한 사무직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근골격계 통증 수준은 4.55점(10점)으로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근골격계 통증은 4.43점[16]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는 2.71점(4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3.25점[9]으로 평균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와 Nam[1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직무만족도는 평균 수준으로 나타날지라도 직무만족도를 나타내는 영역에 따라 낮은 수준[20]을 보일 수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의 영역에 따른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을 분석한 연구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의 경우 연령, 종교,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가 어려우나 사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40세 이하의 남녀 사무직 공무원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피로가 높게 나타나[19]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 이는 연령이 적을수록 업무 경험의 미숙으로 피로도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30-40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중책적

인 일을 담당하기 때문[21]에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이 증가하여 피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경우 연령, 근무연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Hwang[20]의 연구에서도 25세에 비해 35세 이하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업무 만족도가 낮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거나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Lee, Lee와 Yoon[12]의 연구에서는 근무연수가 길수록 업무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낮은 직무만족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보수[3]로 오래된 근무연수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는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피로, 직무만족도 및 근골격계 통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로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Shin과 Kim[22]의 연구에서 피로 자각증상이 낮게 나타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와 근골격계 통증 관계에서 근골격계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한 Lee, Lee와 Yoon[12]의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와 근골격계의 통증과의 상관관계에서 통증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근무연수, 피로, 근골격계 통증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Hwang[20]의 연구에서 7가지 영역에서 직무만족도를 측정할 결과 업무의 만족과 근무연수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고, 직무만족도와 피로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22]고 하였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력이 8.4%로 다소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근무연수, 월보수, 근무형태, 근무시간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문항은 외적인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인 환경인 개인, 심리요인이 생략이 되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성으로 내적 요인을 추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의 피로, 근골격계 통증 및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을 변인으로 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결되는 점에서도 임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피로와 근골격계 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를 위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직군에 따른 피로, 근골격계의 통증, 직무만족도를 알아보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피로 및 근골격계 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재 및 교육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http://www.freeget.net/bbs/board.php?bo_table=statistics&wr_id=145
- [2] http://www.hinet.or.kr/bbs/board.php?bo_table=5010&wr_id=13&page=19
- [3] J. K. Baek, C. B. Cho & D. Y. Kim. (2020). Analysis on satisfaction by Workers of Welfare Centr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the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4(1), 46-69. DOI: <http://doi.org/10.16884/JRR.2020.24.1.49>
- [4] H. S. Lee & H. S. Nam. (2013). Disabled living facility worker's job satisfaction impact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1, 69-89.
- [5] H. Y. Kim. (1977). *A study on factors determining satisfaction at duty of social welfare officer*. Master di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6] T. Y. Lee & H. S. Lee. (2002).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rehabilitation center employees. *Journal of Chungnam Medical*, 29(2), 23-32.
- [7] Y. S. Youn. (2014). Study on workers' of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 focusing Daejeon -. *The Journal of Pubic Welfare Admimistration*, 24(1).

[8] S. K. Choi. (2015).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workers at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Kookmin Social Science Reviws*, 22(4), 371-384.

[9] Y. D. Won. (2013). *The 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s and job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er*. Master disertation. Mokwon university, Seoul.

[10] D. M. Yeom. (2013). The impact of job stress of the disabled workers on life satisfaction-mediated moderated effect verification on job satisfaction through social support.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1), 163-188.

[11]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2013). *Science of Stress*. Seoul : Korea medical science.

[12] K. S. Lee, W. H. Lee & M. J. Yoon. (2012). Relationship between musculoskeletal pain and job satisfaction of the physical therapists in elderly care facilities.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4), 49-60.
DOI: 10.12811/kshsm.2012.6.4.049

[13] J. E. Lee, T. S. Kim & I. S. Park. (2001). The relationship of job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job satisfac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Health Promotion Research in Gerontological Nursing*, 4(1), 41-52.

[14] J. E. Schwartz, L. Jandorf & L. B. Krupp. (1993). The measurement of fatigue: a new instrumen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7(7), 753-762.

[15] S. J Jang. (2000). *Medicine - statistics and numerical data*. Seoul : Gyechuk Publish.

[16] E. Y. Lee & J. S. Kim. (2017).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abor, fatigue, and musculoskelatal pain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351-359.
DOI: 10.5762/KAIS.2017.18.1.351

[17] C. mith, M. Lorne, C. edall & L. Hulin. (1970).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work and retirement : a strategy for the study of attitude*. Chicago : RandMcNally.

[18] S. J. Lee, (1994). *A study on social worker's job satisfaction*. Master di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19] K. H. Cho, H. K. Yang, K. H. Kim & Y. C. Cho. (2007). Fatigue Symptoms and Its Related among Clerical Public Officer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evention*, 24(2), 9-44.

[20] S. W. Hwang. (2007). *A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the workers at a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1] S. Y. Han. (2007). Socio-demographic, life style and work 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nd fatigue of white collar worker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4(3), 61-71.

[22] M. W. Shin & Y. S. Kim. (2008). The effects subjective fatigue symptoms to job satisfaction in Daejeon city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Dental Hygiene Education*, 8(1), 73-91.

박 서 연(Seoyoun Park)

[정회원]



- 2018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보건 및 사회복지
- E-Mail : mrsy80@naver.com

이 동 진(Dongjin Yi)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2013년 9월 ~ 현재 : 진해장애인복지관 운동재활사(선임대리)
- 관심분야 : 운동재활, 사회복지
- E-Mail : ginnyya@hanmail.net